

개발·생산·정비 ‘패키지 동맹’… K-방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ADEX서 美·EU 기술협력 확대
한화·KAI·로템 공동개발 추진
유럽 현지생산·정비 본격화
후속군수·훈련 서비스 확장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공동개발·현지생산·운용정비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성능·국산화를 높이는 공동개발, EU 역내 조달 기조에 맞춘 생산거점 확대와 장기 운용·정비(O&S) 협력까지 포괄하는 ‘패키지형 동맹’ 전략으로 글로벌 4위 방산강국 도약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를 계기로 주요 업체들은 미국·유럽 기업과 기술·무기·플랫폼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다수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특수임무기·중형헬기·KF-21 급유비행시험 등에서 협력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GE에어로스페이스와 해군용 가스터빈 패키지(LM2500·LM500)를 공동개발한다. GE가 핵심 엔진을, 한화는 통합 어셈블리 설계·생산을 담당한다.

현대로템은 미국 방산 인공지능(AI)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솔루션 기업 씰드AI와 AI 기반 다목적 드론 운용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대한항공은 미국 무인기 전문업체 AV사와 ‘JUMP 20’ 기반 중형 무인항공기 시스템(MUAS)의 한국형 통합·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들 협력은 기술 주권 강화와 현지화 기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 수출의 축은 이미 완제품 판매에서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 중동 등이 자국내 생산을 요구해 국내 기업들은 이전 가능한 범위의 기술을 제공해 시장 접근성과 장기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7곳과 함

께 보병전투장갑차(IFV), 모듈형 추진장악(MCS), 유도무기의 유럽 현지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협력·품질관리·현지 인력 교육과 함께 판로 확대를 위한 금융·비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지화는 조립 거점을 넘어서 수명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 경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한화는 노르웨이 아코디스 노르딕스와 ‘천무’ 시뮬레이터 공동개발에 나서 훈련·운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무기체계 생애주기 비용의 약 70%가 운용·정비(O&S) 단계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정비·훈련 등 후속군수지원 계약은 방산 수익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

틴과 미군 회전익기 후속 군수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미국 S3 에어로 디펜스와 항공기 공압 터빈 스타터(ATS) 정비기술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기술·생산·정비 단계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기 판매액은 3187억 달러, 러시아 1116억 달러, 프랑스 195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13조8300억 원)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올해 150억 달러, 내년 200억 달러로 글로벌 4위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통령실은 ‘방산 4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최근 폴란드·루마니아의 정상·장관급 면담과 대통령 친서 전달 등 수주 지원활동을 했다.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EU는 역내 조달·현지생산을 지향하며, 역외 도입 시에도 현지생산 조건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보호무역에 가깝다”며 “한국이 글로벌 4위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공동개발·현지생산·O&S를 결합한 패키지형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창업진흥원

AI·딥테크 등 총출동

K-스타트업, 아시아 공략

SWITCH 2025서 한국관 운영

창업진흥원이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기술·혁신 주간(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 2025’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을 운영하고 국내 유망 창업기업 38개사가 참여한다. 여기에는 딥테크, AI,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관련 기업이 포함돼 있다.

26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통합관은 한국관 중 최대 규모(총 198㎡)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한국과학기술원이 함께 운영한다.

SWITCH는 싱가포르 중소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주최하고,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재단(NRF)이 후원하는 아시아 대표 기술·혁신 축제다. 지난해에는 100여 나라에서 2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400개 전시업체와 30개의 국가관이 함께해 글로벌 혁신과 기술창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CC, 신형기 도입 가속… 효율·경쟁력 동시 강화

이스타·제주, B737-8 투입
연료효율 높여 수익성 제고
탄소감축 규제 대응 본격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잇달아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며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지속되며 달러로 결제되는 리스료와 유류비 부담이 함께 커졌지만, 연료 효율을 높이고 정비·결항 위험을 줄여 수익성과 운항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26일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A320neo·B737MAX 등 차세대 단일통로기는 기존 기종보다 좌석당 운항비용(CASK)을 15~2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K는 연료·정

비 등 운항비 전반을 좌석·거리로 나눈 지표이다. 연료 효율 개선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단거리 노선 비중이 큰 LCC는 이륙·상승 구간에서 연료 소모가 집중돼 절감 효과가 장거리 항공사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순차적으로 도입 중인 B737-8(B737MAX 계열)은 기존 동급 기종 대비 약 2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체가 젊을수록 고장 가능성이 낮고 정비 주기가 길어 지연·결항과 정비비를 줄이며 하루 가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신형기의 장점이다. 국내 주요 LCC의 평균 기령은 11~13년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준수한 편이지만, 연료 효율과 운항 단가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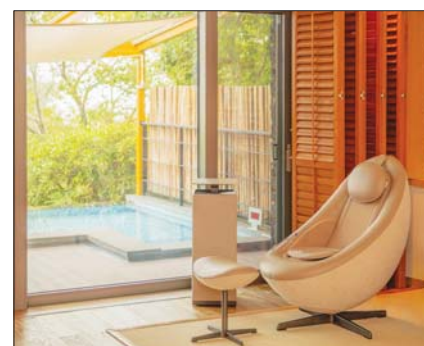
때문에 각 사는 차세대 기체 중심으로 교체 속도를 높이며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최근 7번째 B737-8 구매기를 도입했다. 현재 43대를 운용중인 데 오는 2030년까지 평균 기령을 5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스타항공도 지난 17일 19호기를 도입했다. 올해에만 B737-8 신조 5대를 추가해 평균 기령을 7년대로 낮췄고, 연내 20호기 인도가 예정돼 있다. 티웨이항공은 기령 20년 도래 전 교체 원칙을 유지하며, 내년부터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A330-900neo를 순차 도입해 인천 허브 중심의 장거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LCC들이 신기체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팬데믹 이전 계약분의 인도 시점이

도래한 영향도 있다. 코로나 이전 다수 항공사가 보잉·에어버스에 20~50대 규모의 기체를 주문했지만 팬데믹으로 인도가 지연됐다. 이후 여객 수요 회복과 함께 계약 이행이 재개된 것이다.

신형기 투입은 서비스 품질과 네트워크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신 기체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객실 인테리어·공기질이 개선돼 체감 품질이 높다. 여기에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의 탄소감축 정책인 CORSIA(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지속가능항공연료(SAF) 혼합 의무, EU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등 규제가 확대되면서 고효율 기체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혜은 기자



롯데호텔 제주에 마련한 ‘코웨이 X 풀빌라 스위트 객실’ 전경.

‘코웨이X풀빌라 스위트’

숙박할인 등 혜택 강화

롯데호텔 제주서 제휴 객실 마련

코웨이가 롯데호텔 제주에 코웨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코웨이 X 풀빌라 스위트’ 브랜드 제휴 객실을 마련하고 제휴 사업과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롯데호텔과의 제휴 객실은 롯데호텔 서울, L7 해운대 바이롯데, 롯데호텔앤리조트 감해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한 공간이다.

제주 롯데호텔은 기존과 달리 ‘코웨이 X 풀빌라 스위트’ 제휴 객실로 운영한다. 객실 내에 비렉스 매트리스와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코웨이 제품을 함께 비치한 것이 특징이다. 투숙객은 코웨이의 프리미엄 제품을 경험하며 차별화된 휴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코웨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코웨이 멤버스클럽’ 혜택도 확대했다. 코웨이 고객 누구나 롯데호텔 제주 객실을 최대 18%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이용 시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완성형 SAV’… 스포티함에 품격을 더하다

〈스포츠엑티비티차〉



자동차 시승기

BMW X3 M50 xDrive

정지 후 4.6초면 시속 100km 도달
398마력·59.1kg·m로 폭발적 성능

4세대로 돌아온 BMW X3 M50 xDrive(M50)는 ‘스포츠엑티비티차(SAV)’의 본질을 다시 썼다. 스포티함과 안락함, 고급감과 실용성을 모두 잡으면서 BMW가 추구한 ‘완벽한 균형’이 이번 차에서 완성된다.

외관은 이전보다 길고 넓어진 길이 4755mm, 너비 1920mm, 높이 1660mm로 안정감 있는 비율과 매끈한 선 처리로 날렵한 실루엣을 뽐낸다. 대형 수직 키드니 그릴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이 적용돼 존재감을 높였고 화살촉 모양의 주간주행등(DRL)과 T자형 리어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완성했다.

실내는 BMW 특유의 운전자 중심 구조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통합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한눈에 모으고, 하단의 ‘인터

랙션 스마트 바’ 조명이 주행 상황과 위험을 색으로 표현한다. 버튼은 최소화하고 터치 중심의 UI로 전환됐지만, 직관성은 그대로다. M 전용 사이드미러, 4개의 배기구, 21인치 휠 등 고성능 모델만의 정체성도 확실하다.

M50은 3.0 l 직렬 6기통 트윈파워워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했다.

최고출력 398마력, 최대토크 59.1kg·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6초. 스펙이 수치로 증명하듯, 응답성과 여유가 차원을 달리한다.

기본형 BMW X3 20 xDrive는 2.0 l 4기통 트윈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출력 190마



BMW X3 M50 xDrive 외관 모습. /이승용 기자

력, 최대토크 31.6kg·m를 낸다. 복합연비 10.9km/l로 효율성 중심의 세팅이다. 반면 M50은 출력이 두 배 이상 높고, 복합효율 10.6km/l로 성능 대비 효율성까지 끌어올렸다. /이승용 기자 lsy2665@